



濁流清論

제33호 2014년 9월 17일(수)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교황의 방한이 남긴 울림	1
특집: 아주대학교 특성화사업의 개요	3
융합전직특성화 산업단	7
지역전문 경영력덕을 양성한다	10
미디어 콘텐츠 .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	11
프랑코포니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12
스마트 제조서비스 융합인재 양성	14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선순환적 융합 교육: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기반	16
생태학적 발전모델과 미래에 대한 비전	18
소통과 담론 : 렉틴아카데미가 가톨릭의 세가지 장면	20
교수들의 건강칼럼 : 뇌졸중, 소려없이 다가오는 계승사자	22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교황의 방한이 남긴 울림

불어불문학 강충권

필자는 특정한 종교를 믿거나 선호하지 않으며, 독선적이 아니고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종교의 신자에게나 똑같은 존중심을 품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지난 8월 14일에서 18일에 걸친 교황의 방한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외신 일부에서도 언급했듯, 혹자는 교황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톨릭 신앙을 선교, 확장하기 위해 왔다고도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닷새 동안의 교황의 방한은,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가톨릭 신앙 정착을 이룬 한국에 대한 축복이나 단순한 아시아 지역 선교를 뛰어넘으면서 현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신부, 주교, 추기경 시절부터 낮은 곳에 임하는 교황의 행적은 이미 많이 알려졌기에 필자는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교황의 방한 동안 가능한 대로 최대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시청하면서 그의 말과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교황의 모든 방한 어록을 인용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주요하게 생각되는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황이 두드러지게 강조한 점은 약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었다. 필자도 이미 여러 차례 예전의 글에서 지적한 물질주의, 무한경쟁의 위험성을 교황도 이번에 지적했다.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성모승천대축일 강론)

2페이지에 계속

고도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풍속이 급변했다. 게다가 개발 광풍의 덕을 본 부동산 줄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개인과 기업이 많아지면서 정상적인 노력으로 창출하는 부의 가치가 왜곡되고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었다. 결과라 예전에는 연민의 정을 갖고 대하며 돕던 가난한 사람들을 천시하고 혐오하고 놀림감으로 삼는 지경이 되었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기만 해야 할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 반에 가 보라. 그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는 틀림없이 왕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만 그러한가.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불운이나 불행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행운이나 행복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우월감까지 느끼며 질질대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발견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주위에는 불가항력의 가난,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억울하게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좌절하거나 스러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불행을 겪지 않고 유복하게 자라서 입신양명한 사람이 자기보다 소위 사회적인 성취도가 못한 사람을 깔보며 그것을 자신의 태생의 우월성으로 삼거나 또는 한국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 온 사람을 깔보는 언행을 한다면 그런 한국인은 자신보다 유복한 태생의 오만한 한국인 앞에서나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내보일 때 결코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태생의 우월성을 자기 존재의 필연성이나 우월성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자기의 복에 감사할지언정 자기보다 불운한 사람을 깔볼 권리는 없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교황의 말은 자연스럽게 종교계에도 울림을 준다. 필자가 말 그대로 채록하지는

못했지만 기억에 따르면 교황은 “성직자가 부유하여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문턱에 들어설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계가 종교의 원천으로 돌아가 항시 되새겨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교황이 중요하게 보여준 것은 열린 사고였다. 우선 종교적인 메시지로는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타인의 믿음을 존중해줄 것”을 말하며 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로 인정하며 같이 걸어가자고 강조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열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교황은 진정한 대화를 강조했다.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진정한 대화란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음을, 인생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는, 평범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상기시킨 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시대의 당쟁까지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근대사에서 보면 특히 광복 전후에 시작해서 6. 25 전쟁을 겪는 가운데 어느덧 한국 사회에는 비민주적 정치행태까지 가세하여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인 풍토가 된 듯 하다.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제3의 이론이나 주장도 가능할 텐데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쾌해하거나 백안시하거나 적대 세력과 동일시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자기 의견이 항상 옳다는 독선이나 아집에 빠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학문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느 시기에 자신이 기여한 업적이 있다면 그것을 평생 훈장처럼 삼으며 자만심으로 타인을 경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성장이나 변화의 노력 없이 이욕고 권위가 더 이상 없는 권위주의에 빠질 뿐이다.

한국의 정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때로는 격론을 벌일 수도 있고 날 선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상대 정당을 흑백논리로 몰아세우며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제거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면서 민주적 정치를 할 수는 없다. 교황의 말처럼 상대방의 말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는 대화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여당은 정권의 재창출을, 야당은 정권의 창출을 전면 표어처럼 들먹이며 올인한다. 정치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모양이다. 진정한 정치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창출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약들의 많은 부분들이 빈 공약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 수립, 그리고 대화의 풍토 조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정치적 사회적 과제로 보인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했으며 교황의 말처럼 단순한 물질적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느냐에 대해서 정치가, 행정가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행동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정부고위관리들이 팽목항에서 사망자 명단 앞에서 찍은 인증 사진이나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러 가서 웃음 띠고 파이팅 하며 정치가들이 찍은 인증 사진은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만든다.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미제인 채 예전에 흐지부지되었던 사고와 마찬가지로 표류하고 있다. 왕따와 가혹행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들은 격론을 벌이더라도 진실을 숨기지 않고 탄생을 품지 않는 진지한 대화 정신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전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황 신드롬이 일 정도로 방한 기간 동안 교황은 치유하고 열려 있는 언행을 보여주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울림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특집) 특성화 사업

우리 대학은 지난 수개월 간, 입학정원 감축이나? 국고지원 감축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국 전체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행히도 특성화 사업에 지원한 우리 대학 사업단들이 최대 배정금액인 년 40억 원을 배정받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 구조 조정의 문제, 학과 균형 발전의 문제, 입학정원 감소에 의한 장기적인 재정감소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이번 호 탁류청론에서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전체 구성은 기획처장의 사업 개요 소개- 이번엔 선정된 6개 사업단 소개-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학교에 대한 제언으로 기획하였다.

특 집

아주대학교 특성화사업의 개요

기획처장 김민구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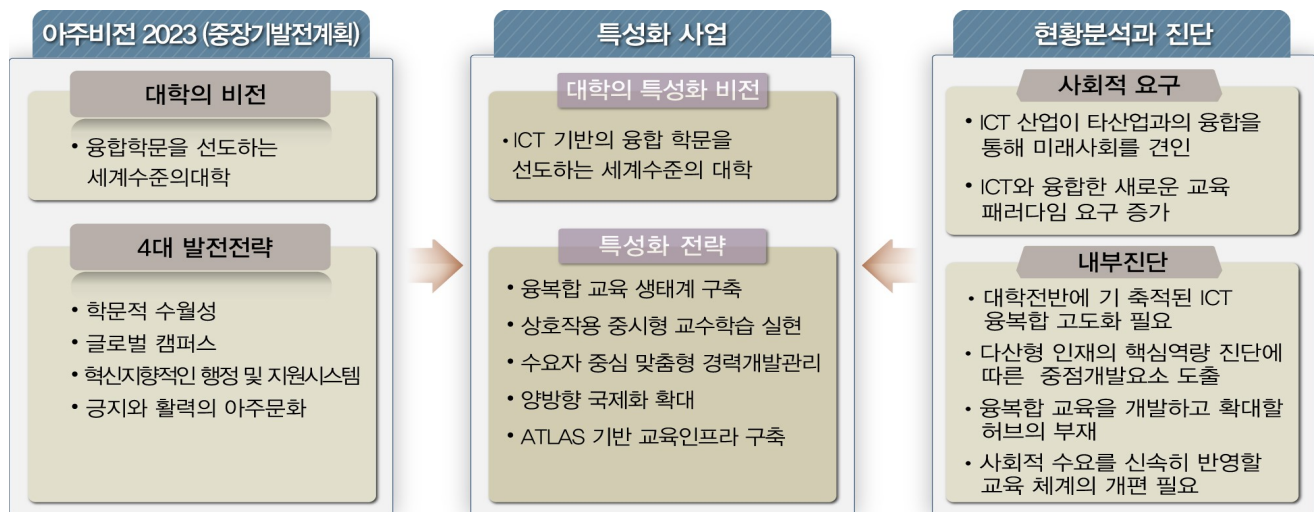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전공단위의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총 6개 사업단(대학자율 3개, 국가지원 3개)이 선정되었으며 금액으로는 40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결과는 수도권 대학 최우수에 해당하는 최대 사업예산 40억 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아주대, 성균관대, 한양대, 국민대, 가천대 이상 5개 대학이다. 정원을 감축하지 않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등 서울권 대학들은 탈락했거나 1~2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서울대는 2개 선정, 고려대와 연세대는 탈락). 본교의 사업단 명단과 교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유형	분야	사업명	중심학과	교부액 (백만원)
대학자율	중형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	전자공학과	1,391
	소형	미디어콘텐츠/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사업단	미디어학과	470
		스마트 제조서비스 융합인재양성	산업공학과	748
국가지원	인문 사회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선순환적 융합 교육:디지털 휴머니티 트랙 기반	국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261
		프랑코포니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불어불문학과	261
	국제화	Globiz 인재양성 사업단	경영학과	869

위 금액 40억 원의 30%인 12억은 본부에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되며, 70%는 각 사업단에서 전공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본 글에서는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학의 비전 및 특성화 계획

대학의 비전인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이라는 아주비전 2023의 발전계획 하에 다산형 인재의 핵심역량 진단과 대학전반에 기 축적된 ICT 역량의 고도화와 함께 ICT산업이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사회를 견인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을 분석하여 대학의 특성화 비전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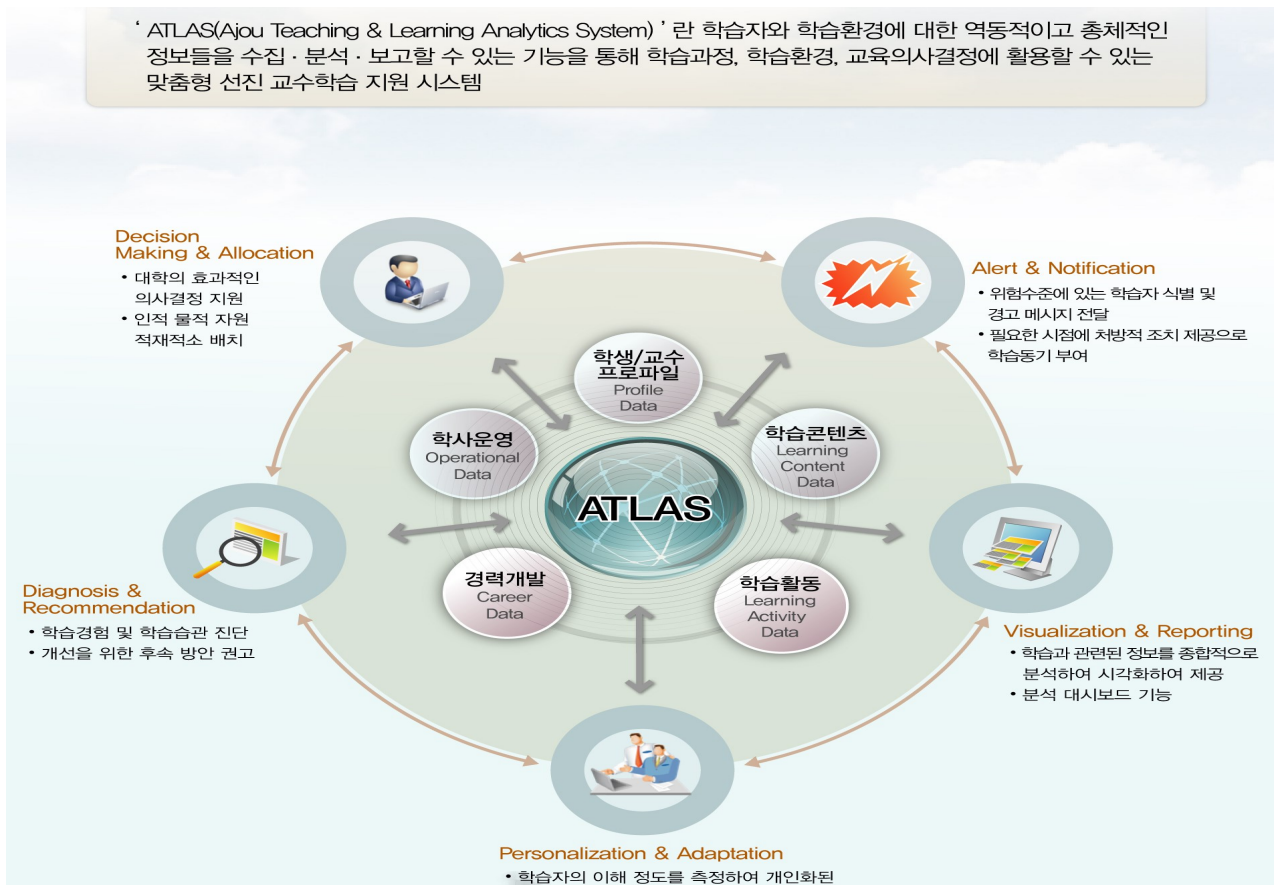
대학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산형 인재의 핵심역량 진단 평가에 근거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다.

특성화전략	추진 목표
융복합 교육 생태계 구축	ICT 기반 다산형 인재의 종합적 사고역량 강화
상호작용 중시형 교수학습 실현	문제해결역량 및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경력개발 관리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촉진
양방향 국제화 확대	글로벌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의 국제화 모델 구축
ATLAS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의 모든 학사, 교과·비교과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다음 장에서는 특성화 전략의 중점추진과제를 개조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ATLAS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특성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사·행정·교수학습·상담·국제화 지원을 위한 ATLAS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
- 대학의 모든 학사, 교과·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분석하여 융복합 학문과 융복합 학습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총체적 교육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과정, 학습환경,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선진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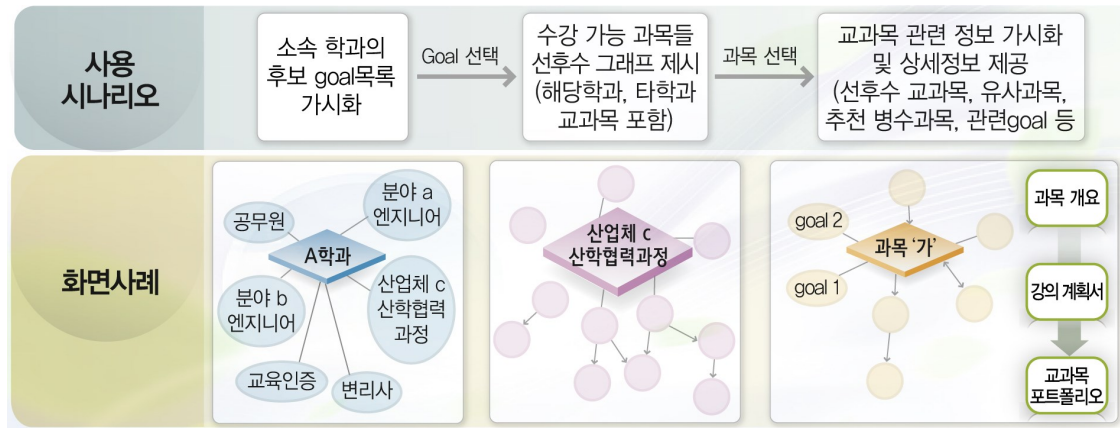
4.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학부교육 내실화

4.1. 수요자 중심 학사관리

—GOLD(Goal-Oriented Learning Design)시스템 : 수강 계획 및 학습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ATLAS와 연동)

수요자 목표기반 학습설계 체계 :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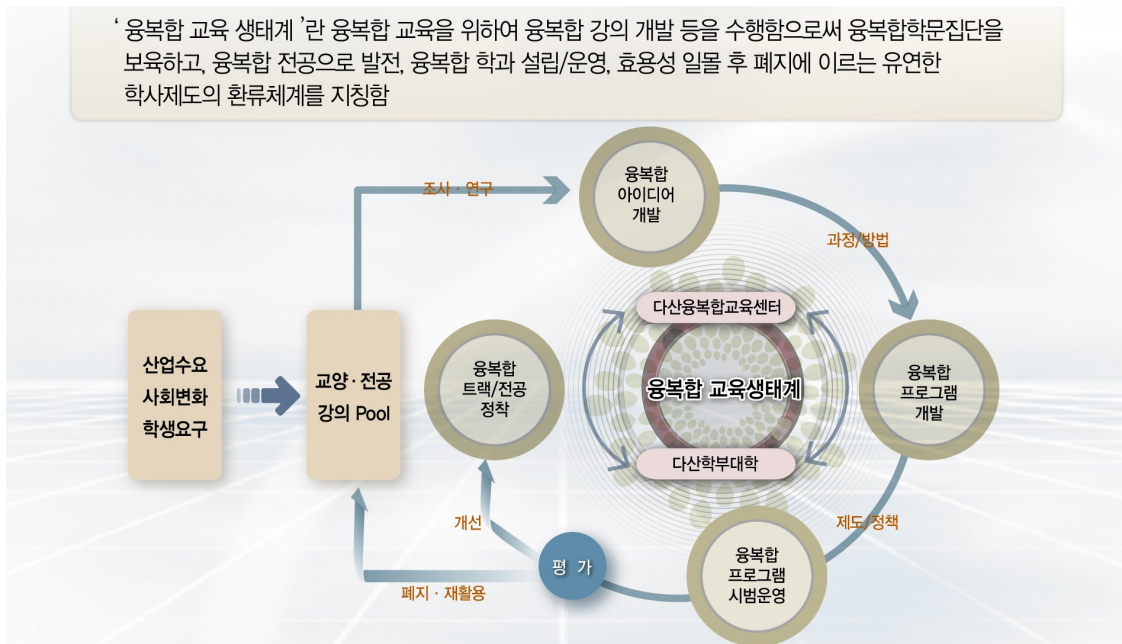
(Goal-Oriented Learning Design)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강 계획 및 학습 계획 수립



[GOLD(Goal-Oriented Learning Design) 시스템 사용 개념]

4.2. 융복합 교육생태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교육 비전 실현

- 기존의 교과목들 간 융복합 관점에서의 관련성 기반 그룹 구축 (강의 페어링)
- 기존 ACE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산교양교육 2.0에서 융복합 교육 생태계 단계적 실현 추진



- 융복합교육 지원 체제 구축: 다산학부대학과 대학교육혁신원 산하 다산융복합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마련,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
- 융복합교육과정 개발: 다산학부대학이 중심이 되어 전공간 강의페어링, 강의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시범운영을 통해 융복합 트랙·전공·학과를 보육

4.3. 상호작용 중시 교수학습

- Flipped Learning, DSAL (Data science for active Learning), 팀 티칭 등
- 교수학습모형 개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호작용 중시형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수법 및 학습법 지원체계를 구축

- 스마트 러닝 환경 구축 :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Active Learning 강의실 구축 등 스마트 러닝에 필요한 제반 학습 환경을 개선

5. 결론

본부에서 목표로 하는 특성화 사업의 방향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융복합 과목의 활성화를 통해 인문사회학적 역량을 갖춘 전문인, 즉 다산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되는 예산은 상당 부분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므로 선정된 전공은 물론 다른 모든 전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선정된 전공단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 및 새로운 교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특 집

융합전자특성화 사업단

사업단장 오 성 근 (전자공학)

사업단 비전

그 동안 전자공학 교육과정은 주로 ‘기술군 위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융복합IT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산업군 위주의 융복합IT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자공학과에서는 금번 교육부 주관의 CK-II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에서 ‘단순 기술군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산업 분야별 융합전자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통한 ‘산업수요 지향적 융복합IT 특성화 교육체제’를 구현함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융합전자인’을 양성하여 ‘융복합IT 학문을 선도하는 최고수준의 전자공학과’로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특성화 산업분야

융복합IT 특성화 교육체제 구현을 위한 특성화 산업분야로는 반도체IT 분야, 모바일IT 분야, 자동차IT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산업분야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5대 주력산업 혁신산업 중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지능형 반도체’ 산업 분야,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등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증가율이 높은 3대 주력 수출품목 산업 분야, 최근 3년간 전자공학과 졸업생 취업률 분석 결과 (반도체IT 분야(35%), 모바일IT 분야(29%), 자동차IT 분야(15%)로 전체 취업자 중 79%가 3개 분야에 집중) 등 기술동향, 산업동향, 취업동향, 학과 수월성,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핵심 실천 전략

융복합IT 특성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실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학부생연구에 해당하는 ‘융합전자연구’를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인 ‘전자종합설계’ 교과목을 융복합IT 특성화에 부합하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능동적 참여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며, 다음으로 분야별 집중교육, 융합전자연구/전자종합설계에 real-engineering 융복합IT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플랫폼-테스트베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수요 지향적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역량 평가와 전공능력등급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역량 개발/평가’를 실현하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며, 마지막 전략으로 진로설정 및 어학역량개발, 어학졸업인증제, 융합전자연구/전자종합설계 영어발표, 정례화된 학부생 국제학술교류, 영어강의 확대, 외국인 교수 충원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역량 개발’이다. 이를 통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융합전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역량인 융복합 사고역량, 실천적 창의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도록 할 것이다.

산업분야별 세부분야 및 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IT 분야

세부분야

- 시스템 LSI 분야 (집적회로 설계, 모바일/자동차용 SoC, 프로세스 등)

메모리 (휘발성/비휘발성 메모리 설계)

특화반도체 소자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반도체 소자, 전력반도체 소자, 초고주파 반도체 소자, 광반도체 소자, 각종 센서, OLED, LCD 등)

소자공정 및 측정 (제작, 측정, 분석, 패키징 등)

플랫폼-테스트베드

시스템LSI 설계 플랫폼

반도체 공정 플랫폼

자동차 반도체 테스트베드

모바일IT 분야

세부분야

디바이스 (단말기 등 통신/네트워크, 센서, 임베디드 HW/SW, 운영체제, 디스플레이 등)

인프라 (플랫폼 하드웨어 및 서비스, 네트워크 및

통신 등)

어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UI/UX 등)

플랫폼-테스트베드

RF 송수신 시스템 플랫폼 (RF)

통신 및 센서 플랫폼 (통신, MAC, NET)

모바일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APPs)

임베디드/모바일컴퓨팅 테스트베드 (단말기)

자동차IT 분야

세부분야

자율주행 및 안전 (비전, 제어, 로봇, 센서, EMI/EMC, 소프트웨어, 동역학)

네트워크 기반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통신, 임베디드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에너지 (전동기, 전력전자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

플랫폼-테스트베드

전기자동차 전력변환 플랫폼

무인 자동차 테스트베드

자동차용 임베디드시스템 개발 플랫폼

단계별 특성화 교육과정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에서는 융복합IT 특성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 개발, 진로 개발,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1학년에는 기초능력 개발, 2학년에는 핵심전공능력 개발, 3학년에는 산업분야별 응용능력 개발, 4학년에는 산업분야별 실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2학년에는 융합전자공학입문 교과목을 신설하여 3가지 산업분야에 대한

기초지식과 주요 산업기술들, 발전 전망 등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3,4학년에서 학습할 산업분야 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지도를 할 것이며, 3학년에는 산업분야별 집중교육을 통하여 플랫폼-테스트베드를 통한 real-engineering 융복합IT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응용능력을 배양하며, 마지막 4학년에서는 융합전자연구/전자종합설계를 통하여 플랫폼-테스트베드 융복합IT 환경을 이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또는 첨단기술들을 주제로 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산업분야별 최선의 기술들을 산업체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듣는 현장 핵심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탐구하는 분야별 산업특론 교과목을 4학년 과정에 두어 현장 중심의 문제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융합전자연구/전자종합설계 중점 추진

- 학부생 연구인 융합전자연구를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전자종합설계와 병행 운영하고, 운영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효율화 추진
- 산업분야별 집중교육을 기반으로 한 응용능력 배양 후 융합전자연구/전자종합설계를 이수하게 함으로써 현장 실무능력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자신감 고취
- 플랫폼-테스트베드 중심의 산업수요 지향적인 융복합IT 문제해결능력 배양
- 산업분야별 산학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산업체 애로기술 연계를 통한 산업 현장 문제 해결 연구
- 단계별 핵심전공역량 (창의성, 설계능력, 전공이해도) 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영어발표, 정례화된 학부생 국제 학술교류

사업단 인력활용 계획

- 분야별 사업단 산학협력 전담교수 채용을 통한 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및 관리하고, 분야별 산업특론 교과목 운영을 주관하며, 산업체에 애로기술들을 융합전자연구/전자종합설계에 연계하여 연구/설계 주제들을 발굴함

- 글로벌 역량 개발과 분야별 기초 교과목 강의담당을 위하여 외국인 교육중점교수를 채용할 것임

- 융복합IT 교육과정을 위하여 물리학과, 미디어학과, 기계공학과로부터 교과목 지원을 받아 운영

맺음말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은 산업군 위주의 융복합IT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산업수요 지향적 융복합IT 교육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융합전자인을 양성함으로써 융복합IT 학문을 위한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융복합IT 학문을 선도하는 최고수준의 전자공학과로 도약함으로써,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이 우리 학교가 ICT 기반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전문 경영리더를 양성한다

사업단장 조영호 (경영학과)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합작으로 탄생한 우리 학교는 말 그대로 ‘태생적인’ 글로벌 대학이다. 그래서 70년대 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외국인(당시는 프랑스인)이 많았고 또 학생들이 재학 중에 외국에 파견되기도 했다. 1976년 대우학원이 우리 학교를 경영하게 되면서는 대우의 ‘세계경영’ 철학이 접목되어 글로벌화는 더욱 중요한 학교의 운영방향이 되고 나아가서는 대학이념에 ‘세계일가’가 3대 항목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경영대학은 이러한 학교의 운영방향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00년부터는 영어강의(English Speaking Class)를 대대적이고,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당시에는 일부 대학에서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취향에 따라 일부 강의를 외국어로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우리 경영대학처럼 조직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영어강의를 실시한 곳은 거의 없었다. 초창기에는 필수과목은 여러 반이 열리더라도 모두 영어로 개설했으며, 영어강의 비중이 개설과목 중 50%를 넘기도 했다. 그 후에는 교환학생 파견을 권장하고 또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 때 해외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어강의만 하더라도 학습성과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어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해외파견 학습만 해도 참여학생이 일부에 국한되고 말았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국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던 우리 경영대학의 평판도도 점점 하락하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된 특성화 사업인 글로벌 인재양성은, 그 동안 우리가 시도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 학교의 DNA와 이념에 걸맞는 제대로 된 국제화 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비즈니스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생겼다. 글로벌화라 하면 은연중에 Global Standard를 생각하게 된다.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버리고 어떤 ‘선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따라 가자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선진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화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의 활동 무대도 뉴욕이나 런던 또는 유럽의 대도시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글로벌화가 아니라 왜곡된 글로벌화일 뿐이다. 글로벌화는 이와 반대로 각 나라, 각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창조적인 융합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지역적 고유성을 풍요롭게 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뉴욕이나 런던뿐만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 베트남의 호치민, 터키의 이스탄불,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모두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영대의 특성화 사업은 그래서 그냥 글로벌(Global) 리더가 아니라,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학과 지역학의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경영학적 인텔리전스를 보유하면서도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 특화된 ‘지역 전문 경영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를 7개 권역(중국, 일본, 동남아·인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중동)으로 나누고 경영학과 학생들이 4년 공부하는 사이 어느 한 지역 트랙을 전공하게 할 것이다.

2015년 1학기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에서 129학점으로 늘어나며, 제2외국어도 필수가 된다. 그리고 어느 한 학기를 International Semester로 지정하여 그 학기에는 교환학생을 가거나 해외인턴십을 가거나 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교과외 활동도 펼쳐진다. 지역연구소학회 활동을 하게 되며, 글로벌 리더특강도 듣고 그리고 경영필독서도 읽어야 한다. 영어교육도 넘어서 할 장벽이다. 스피킹 위주로 전 학생이 한달 동안 숙식을 하며 실전영어를 익히는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특성화는 우리 학생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Global Exposure)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이 되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을 우리 캠퍼스에 유치(Global At-

traction)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연 100명 정도 오는 교환학생을 150명 수준으로 늘리고 외국인 입학생도 연 70명 정도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과목에 영어강의반을 한반이라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이 전혀 새로워지고 필수과목도 많이 늘지만, 재학생들도 사실은 새 교육과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재학생들은 선택으로 새로운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LG전자 중국법인에 한 학기 인턴십을 하기 위해 두 명의 학생이 북경으로 출국했고, 겨울 방학에는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에 인턴십 학생이 떠날 예정이며, 150명 가량이 겨울방학중 글로벌 현장연수를 위해 5개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두를 Global 3.0이라 부른다. 영어강의를 도입한 것은 Global 1.0이고, 해외파견을 확대한 것은 Global 2.0이라 할 수 있다. Global 3.0은 부분적이 아니고 전면적인 글로벌화이고, 선택적이 아니고 필수적이다. 아주 경영인이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고, 경영대의 위상 또한 높아졌으면 한다. Go Global, Ajou! (사업단 슬로건).



미디어 콘텐츠 ·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

사업단장 이 경 원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는 1998년 국내최초로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IT+예술+기획의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컴퓨터공학, 디자인, 3D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사운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으로

이루어져 융복합사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본교 미디어학과의 역사가 바로 국내 융복합 특성화 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미래 전략

산업에서 미디어학과만의 강점과 주력 취업분야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지능형 사물인터넷, 실감형 콘텐츠, 빅데이터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도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마케팅의 일련의 과정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설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새로운 IT기술이 등장하여 이러한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분석/처리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사업단에서는 미디어콘텐츠와 데이터사이언스(현 소셜미디어) 두 전공이 각각의 차원에서 서로 결합하는 학과 전문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미디어 전문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미디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추진전략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여, 첫째 융복합 전공 교육 강화를 위해 IT+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 융합 교육, 미디어

집중교육, 학부생 연구, 혁신 콘텐츠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며, 둘째 산업수요 지향 교육 구축을 위해 학부생 조기 창업 프로그램, 실무형 산학 연계 교육, 미디어-인더스트리 링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셋째 학습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학과 전공교육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 모델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글로벌 교육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제공동강의 프로그램, 해외 장단기 파견 프로그램, 해외교원 및 산업체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다섯째 교과·비교과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5년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세부 추진전략이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가치창출의 원천이 자원과 노동력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종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창조적 사고, 협력적 리더십, 문화적 포용력을 가진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고자 하는 특성화 목표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특 집

프랑코포니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사업단장 박 만 규 (불어불문학)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와 과학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의 비중은 여전히 너무 작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도 이 분야에 진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사무언어는 대부분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그래서 프랑스어 능력을 가진 인재는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하겠다.

2050년에 프랑스어 사용자 수가 7억1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Atixis 은행의 연구 보고서가 올초에 나왔다. 이는 프랑스어가 북경어(Mandarin)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된다는 뜻이다. 프랑스어의 이 같은 확산은 특히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7개국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최근 눈에 띄게 정치적 안정이 증대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인프라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떠오르는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기구에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통상에 안목을 갖춘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불어불문학과는 이 같은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2년부터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융복합 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는 학부과정에 프랑스어권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사례가 되며, 물론 본 사업단 선정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프랑코포니’ (francophonie)는 프랑스어를 모국어 혹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북미의 퀘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배경은 프랑코포니와 교류하는 기업 및 기구와 프랑코포니 지역에서 활약할 한국의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아프리카나 퀘벡 등에서는 교류를 원하는 국가에 대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장기적인 win-win 관계의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언어·문학·역사·문화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없이 그 지역에서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던 구시대적 진출은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여

프랑스어권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의 인문학적 기반 위에 사회, 경제 등 지역학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프랑스어권 지역과의 교류 기관 혹은 국제기구 등에서 활약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학과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통적 불어불문학과와의 외연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단이 실시할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명	세부계획
1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교내 프랑스어 캠프 현지몰입교육 (프랑스어권 해외 특별과정) 및 1:1 언어 매칭 교환 프로그램 Café Français, Café Francophone
2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제작 프랑코포니 정보포털 운영 관심 지역 파견 교육 교환학생
3	장학금 지원 사업	프랑코포니 연구 장학금 peer tutor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4	시설 확충 사업	프랑코포니 존 설치 프랑코포니 정보포털 구축

이 프로그램들과 함께 ‘국가 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이는 1학년 때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국가 1개를 선정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로 설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목록은 사업단의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며, 학생은 매 학기 자신이 선정한 국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 시까지 총 7회의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국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이렇게 갖추어진 역량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 국가에 직접 가서 현지의 주요 문화산업과 산업 시설을 살펴보는 ‘관심지역 파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연수를 받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에 인턴십 활동이 더해짐으로써 이를 통해 가까운 장래에 국제기구나 프랑스어권 기업에 진출하거나 국내의 프랑스어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중장기 성과로 기대한다.

학생들을 프랑스어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곳은 안전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대사관 등 국가기관과의 협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선 주한코트디부아르 대사관과 협약을 맺었고, 곧 가봉 대사관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관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집

스마트 제조 서비스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장 박재일(산업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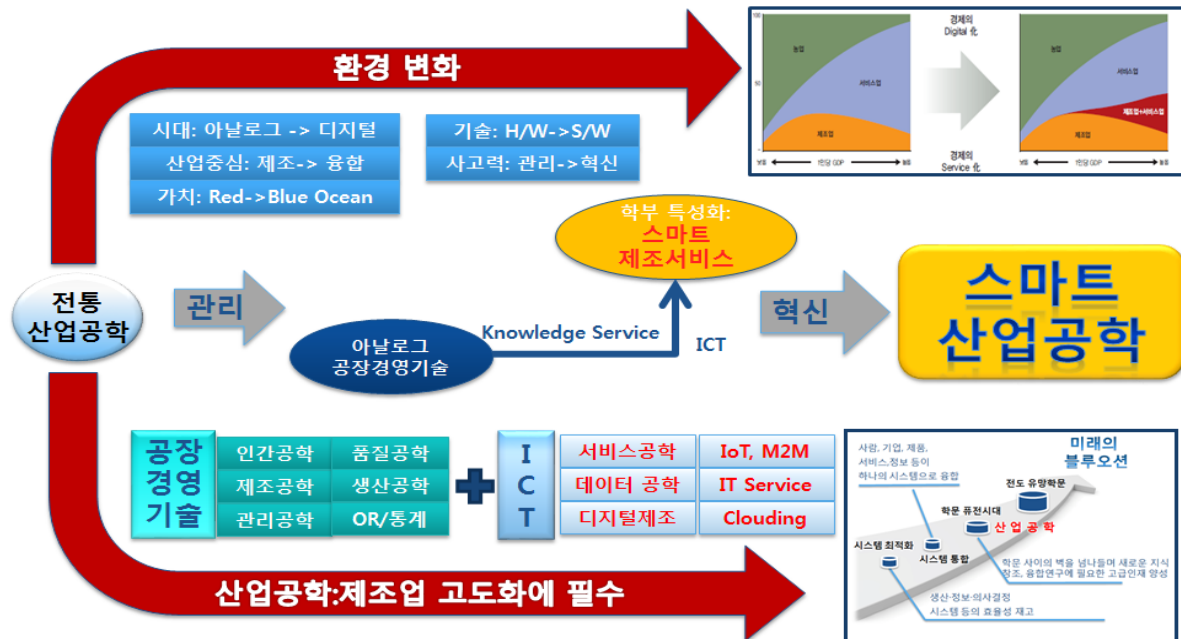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여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 중심의 높은 제조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GDP 기준 제조업 비중: 중국 1위, 한국 2위, 일본 4위, 독일 5위), 시간당 노동생산성 기준으로는 OECD 중 28위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도에서 탈피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제조서비스 융합 인재 양성’을 사업단의 목표로 정했다.

모든 산업에 공통되는 분야는 제조로 산업공학은 제조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개선시키고 최적운영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그동안

산업체에서는 산업공학 졸업생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 시스템이 학문특성상 이론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미래의 제조 산업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산업공학이라는 아이덴티티 (Identity)를 유지하면서 미래 제조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공학의 핵심 역량과 이에 따른 특성화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환경의 변화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H/W에서 S/W 중심으로, 제조에서 융합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산업공학의 핵심역량은 제조 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공장경영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장경영기술:

(1) 생산물류, (2) 통계 품질 및 신뢰성, (3) 작업설계 및 인간공학, (4) OR 및 최적화, (5) 경영공학, (6) 정보시스템). 제조서비스는 이러한 공장경영기술을 지식서비스 형태로 전달하는 분야이며 그 수단으로 IT•SW,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센서·디바이스 기술을 융합한다. 다른 전공의 융합과 다르게 산업공학 기반의 융합은 중소 제조 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지식과 디지털화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스마트 제조서비스 융합인재양성

본 사업단은 융합형 新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등 3대 실천 전략을 정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 위주의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 제조분야 IT•SW,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센서·디바이스 실습 ▲지식기반 창업 ▲기능기부형 산학협력 설계교육을 신설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2-30대 벤처 기업인들과 공동으로 창업캠프를 운영하여 창업 정신 및 실무에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중심의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산업공학 6대 공장경영기술 분야별로 수요 기업과 연계해 당면한 애로 기술 (생산원가절감, 생산시간 및 납기단축, 제품의 불량률 감소 등)을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제조서비스 융합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특집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선순환적 융합교육: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기반

사업단장 정 경 훈 (영어영문학)



사업단 특성화 : 국어국문학-디지털-문화콘텐츠의 융복합

1. 디지털시대의 인문학 전망 : 디지털과의 융합

1990년대 이후 인류 문명은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은 인간, 문화, 사회를 영구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인 인문학도 기존의 인문학과 다른 차원의 인문학, 새로운 인간형인 디지털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문학 교육도 새롭게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인문학이 재탄생되는 분야가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인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ies)이다. 디지털 휴머니티의 교육은 디지털을 단지 배경이나 도구적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가치의 실용적 적용과 확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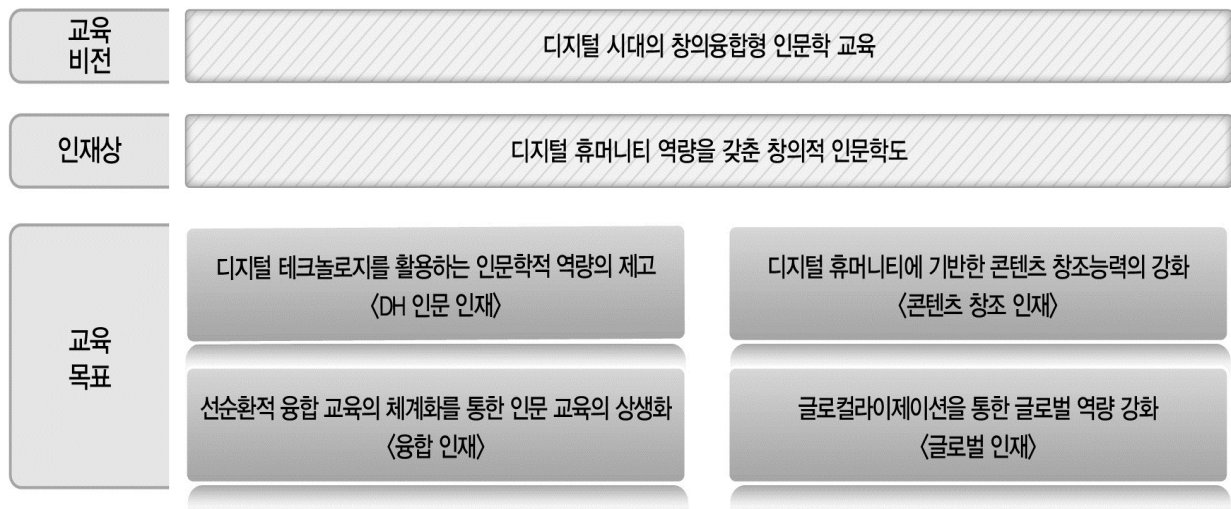
2. 디지털 휴머니티의 정의

디지털 휴머니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 문화, 전환에 의한 인문학의 재탄생이고, 인문학적 통찰력에 의한 디지털 접근과 기술의 혁신이며, 인문학과 디지털의 상호작용에 의한 양자의 변화, 혁신, 재탄생의 과정을 가리키지만, 본 사업단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확장하고, 동시에 전통 인문학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디지털 인문학**,’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인문학 소스를 활용하여 기획·창작 역량을 확장하는 ‘**트랜스미디어 문화콘텐츠**,’ 인문학적 통찰과 문화콘텐츠의 디지털적 변용을 통해 디지털 문화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디지털 (포스트) 휴머니즘**’을 의미한다.

3. 디지털 휴머니티의 인재상

디지털 휴머니티의 교육은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인문학도를 양성**하는 것이다. 본 사업단의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은 인문학 역량, 디지털 역량,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융합 인재를 양성하여 아주대 인문학도에게 사회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디지털 문명이 가속화되는 이 사회는 향후 디지털 휴머니티의 교육을 받은 인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4.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의 교육 비전과 목표



5. 트랙의 교육과정 구성

본 사업단은 디지털시대에 선도적인 창의융합형 인재의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부전공 수준(24학점 이수)의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을 운영할 것이다. 디지털기술, 인문학, 문화콘텐츠의 분야나 융합적 분야로 진출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기획, 창작, 분석 등 특정 역량을 집중 육성하는 교과와 비교과 과정을 유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특성화의 교육 성과가 분야별 사회진출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인문학-디지털-문화콘텐츠 교과목 간의 유기적, 상보적, 공진적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 집

생태학적 발전모델과 미래에 대한 배려

물리학과 이 순 일

얼마 전에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에 우리 대학의 6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공학과와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이 13억 9천만원, 미디어학과와 「미디어콘텐츠/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4억7천만원, 산업공학과와 「스마트제조서비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7억5천만원, 경영학과와 「Globiz 인재양성사업단」이 8억7천만원, 불어불문학과와 「프랑코포니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2억6천만원, 국어국문학과와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선순환적

융합교육: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기반」이 2억6천만원을 지원받는다니 우리 대학으로서는 총 40억 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아주 반가운 일이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운영수입 증가가 힘들어 대학의 살림이 팍팍해지고 발전을 도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던 것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좋아만 하기는 어렵다. 특성화 사업 선정이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비용의 부담자가 특성화 사업의

국고지원 수혜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의 운영과 재원 배분에 있어 대학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성화 사업단 구성과 입학정원 감축은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및 발전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사업단 선정은 해당 학과들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넓혀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사업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가 과연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결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이번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분야들이 BK21사업에 있어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반면, 특성화사업단과 무관한 분야들이 BK21사업 대형 사업단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학 차원의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특성화사업 선정이 향후 일종의 구속조건 또는 기득권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대학은 지난 시절에도 몇몇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다시 한 번 특정 분야에 집중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정책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우선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이 선도하는 발전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제한된 대학의 자원을 몇몇 분야에 집중하다가 다른 분야들을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이다.

대학의 수준은 가장 선도적인 분야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뒤쳐진 분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기준에서 뒤쳐진 분야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더하는 것일 뿐이다.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보존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음을 새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발전전략으로 「생태학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바이다. 자연계의 입증된 성공전략은 생태계의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물들로 구성된 생태계는 어떠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서도 살아남아 번성한다. 어떤 종이 주어진 환경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할지가 달라질 뿐, 풍요한 생태계는 면면히 이어진다. 이에 반해 우세종이 너무 탐욕스러워 종 다양성이 훼손된 생태계는 미미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파국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 한 때 지구를 휘젓고 다니던 공룡들은 덧없이 사라지고, 보잘 것 없던 포유류들은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7월 23일에 열린 대학평의원회에 제출된 예산추경(안)에 따르면 특성화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2억 원은 일종의 오버헤드로 보고 본부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나머지 28억 원은 각 사업단이 사용하게 되어 있다. 즉, 2014학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추가적인 국고지원 40억 원 전체의 당기 사용을 전제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추경 안은 몇 가지 우려의 근거가 된다. 우선, 특성화사업비 40억 원이 항구적인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된 것이며 2~3년 후에는 추가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대비할 계획을 수립했어야 마땅하다.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결손액은 (등록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재 기준으로

2018년에 18억 원에 달하고, 2023년에는 30억 원까지 확대되며, 이후로도 영구히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2~3년간 150억 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는 미래의 등록금 수입 결손 5년분을 당겨 보상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운영수입 감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장기적인 피해는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단기적 실익만을 계산하며 아주대학의 미래 세대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 눈감은 것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아주 대학의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당겨쓴, (그러면서 값을 능력이나 생각도 없는) 미래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현재를 편안히 넘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가 국고지원금을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당장 모두 소진하기 보다는, 뻔히 닥칠 것이 예상되는 등록금 수입 결손에 대비하여 운영예산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자원 배분)에 대한 재고는 입학정원 감축의 피해자와 특성화사업의 국고지원 수혜자가 다르다는 면에서도 요구된다. 특성화사업단들의 입장에서는 특정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국비 지원이며 이미 30%를 오버헤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버헤드는 글자 그대로 대학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용도에 쓰이며 (즉, 사업단들도 수혜 대상이다), 또한 사업단의 기능이 교비예산으로 진행되던 학과 차원의 활동과 완전히 구분되지도 않는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사업단과 학과가 실질적으로 동일체임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늘어난 가용 자원 중 교비에서 배정받은 부분을 일부 내놓아 입학정원 감축의 대상이 된 다른 학과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 번 반복하건데, 아주대라는 학문공동체의 구조는 가장 약한 단위의 단단함만큼의 강도를 갖는다.

선정된 사업단 중에서 특히 비교적 큰 학과에 기반을 둔 사업단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서도 교비에서 배정된 예산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학과를 유지 및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학과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배정되는 자원의 대부분을 이런 필수적인 항목의 지출에 다 소진하기에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과에서는 필수 경비를 다 부담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어 이를 교육여건 개선에 폭 넓게 활용할 여지가 있다. 바로 이런 차이가 학생지원에서부터 사무실 환경까지 때깔이 다르게 만드는 요소이다. 특성화사업단에 선정된 대형 학과라 해서 더 많은 자원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학과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을 초과한 추가적 자원에 대해서는 일부 양보하는 아량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만석꾼 하나 나려고 주변 백리가 굶주리는 것 보다는 만석꾼 백리 이네에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이 더 살기 좋지 않겠는가?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다 해도 대학은 달라야 한다.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공공성은 도외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하더라도, 대학에서는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양성이 경쟁력이며 입증된 가장 성공적인 발전전략이라는 기본적인

자연의 진리가 이해되는 수준의 대학이기를 원한다. 미래 세대의 몫을 당겨쓰고 부담만 유산으로 남기는 정책을 시행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행태나, 이들에게 표를 던지며 지금 당장 나만 혜택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우리 대학에는 스며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미래 세대를 배려하여 지금 우리의 몫을 조금 양보하는 양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의 세 가지 장면

사학과 박구병

16세기 중엽 에스파냐 국왕이 교황에게 아메리카 식민지의 성직자 임명권(patronato real)을 부여받은 뒤 가톨릭교회는 아메리카에서 아성을 구축했다. 이를 예증하듯 엘살바도르(구세주), 베라크루스(‘진정한 십자가’), 상파울루(바울 성인), 산티아고(야고보 성인), 콘셉시온(성모잉태), 아순시온(성모승천) 등 가톨릭식의 지명이 곳곳에 붙여졌다.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 자유주의의 전파, 그리고 20세기 혁명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가톨릭교회는 대중의 심성과 일상생활 속에 각인되었다. 2001년에 간행된 <세계기독교백과사전>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에 따르면, 1900년 무렵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던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 인구는 2000년에도 약 87%를 유지했다.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해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의 45%가 라틴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다양해진 종교 지형과 새로운 변화의 조짐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은 여전히 가장 유력한 종교 전통으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장면에 초점을 맞춰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의 역사를 더듬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장면은 아메리카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된

예수회의 선교 활동이다. 장엄한 이구아수(iguazu) 폭포 지역에서 펼쳐진 예수회의 선교는 영화 「미션」(1986)에서 잘 묘사된 바 있다. 예수회는 16세기 중엽 에스파냐와 협조 관계에 있던 포르투갈 왕실의 후원으로 브라질에 첫 발을 내디딘 뒤 16세기 말에 과라니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에 나섰다. 이는 사실상 개종이자 어떤 연구자의 표현대로 ‘영혼의 식민화’였다. 예수회와 그 선교지들은 식민 초기에 정복자들의 엔코미엔다(encomienda)와 원주민 노예화를 견제하려는 국왕의 후원을 받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 크게 다른 상황에 봉착했다. 에스파냐의 부르봉 왕가가 몇 가지 개혁 조치를 통해 식민지 지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예수회 선교지의 경제적 기반과 과라니 원주민 통제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영화 「미션」이 보여주듯 1750년 마드리드 조약에 따라 에스파냐가 예수회 선교지 일곱 곳을 포함해 일부 지역을 포르투갈에 넘겨주었을 때, 할양 지역의 원주민들과 예수회 선교사들은 두 거대 왕국과 바티칸 사이에 벌어진 권력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급기야 1767년에 예수회는 에스파냐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장면은 가톨릭의 신학적 조류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사례로 주목받아 온 해방신학이다. 해방신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영감을 받은 라틴아메리카 가톨릭 성직자들의 실천적 신학 사상과 현실참여 운동이었다. 페루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스(Gustavo Gutierrez) 신부 같은 해방신학자들은 가톨릭교회의 권위주의적 계서제와 경직된 성서 해석에 반대하면서 포괄적인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의 주요 개념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해방신학은 1960-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대중 운동을 후원하면서 앞서 보수적 전통을 유지해온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와 세속 세계 간의 간극을 메우고 사회 정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플랫폼이 되었다. 또 해방신학은 신자들에게 정치적 억압과 폭력의 만연, 경제적 불평등과 대중의 빈곤을 직시하도록 권고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해방에 ‘관한’ 신학을 넘어 그것을 ‘위한’ 신학을 지향했다. 볼리비아의 ‘광부 사제’로 지칭된 노동 수사의 경우처럼 일부가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듯 해방신학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로만 이해할 수 없다. 해방신학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해방 사상은 구원의 예견, 즉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길 준비하는 것이었다.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해방신학의 등장은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의 절충적 성격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의 의례와 신앙 체계는 에스파냐의 지대한 영향 속에서 확립된 동시에 초창기부터 토착 문화와 결합되어 예컨대 갈색 피부의 과달루페 성모(virgen de Guadalupe) 숭배 같이 독특한 종교적 가치관과 관행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장면은 라틴아메리카 출신 첫 교황(교종)

프란치스코의 등장이다. 아르헨티나 추기경 출신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 3월 이래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탈한 모습과 꾸밈없고 분명한 메시지로 효과를 넘어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수회 출신으로 빈민 사목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권고문 <복음의 기쁨>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염원한 그의 존재는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특기할 대목은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권고문이 어떤 지도자의 신선한 각성의 표현이나 해방신학과 일부 교회의 선택이라기보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시대의 징후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해온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의 공식 견해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막바지에 당시 교황 바오로 6세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주교들에게 대륙 차원의 사목 계획을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신자들이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기초 교회공동체(comunidades eclesiales de base)가 라틴아메리카 여러 곳에 세워졌다.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제2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는 이 공동체를 교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빈곤, 정치적 억압, 폭력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신자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1979년 멕시코 푸에블라의 제3차 회의, 1992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제4차 회의, 2007년 브라질 아파레시다의 제5차 회의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주교들은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승인하고 재확인했다. 예컨대 제4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메데인과 푸에블라의 연속선상에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재확인한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과학이나 상충되는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다. 그것은 견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고수들의 건강칼럼

뇌졸중, 소리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

신경과학교실 홍지만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즉, 몸의 혈액이 뇌로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병”이다.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3위 질환이고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 가장 높은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들에게 사회-경제학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질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뇌졸중도 미리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선별하여 예방한다든지 조기증후가 있을 때 적절한 곳에서,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치료 받는다면 환자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혈관재개통요법이나 뇌신경보호요법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 졌다. 혈관재개통요법에는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용해술, 기계적혈전분쇄술, 초음파를 이용한 혈전용해술 등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을 서로 조합하여 혈관을 재개통 시킬 수 있다.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혈관재개통은 과거에 혈전을 몸 안에서 녹이는 방법과 달리 혈전을 몸 밖으로 빼어내는 기계적인 회수(retrieval) 방법으로 시행되어 특히, 과거에 가장 많은 사망을 안겨주었던 근위부 동맥폐색에서 극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한편 뇌신경보호요법으로는 신경보호약물요법, 줄기세포요법 및 저체온요법 등이 있다. 이러한 최신의 방법들을 이용하더라도 급성기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의 뇌세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뇌혈류 상태를 전과같이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뇌세포나 뇌혈관의 상태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뇌졸중 후 뇌세포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다음의 세가지 시간요소다.

첫째로는 뇌졸중 발생시간부터 치료까지의 시간(real time)이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고 치료에 적절한 병원까지 환자가 되도록 빨리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는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환자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뇌졸중(특히 중증의 뇌졸중)임을 인식해 주지 않으면 치료까지의 시간을 놓치기가 쉽다. 아주대 병원 뇌졸중 팀에서는 이를 위해 “뇌졸중에서의 이웃-손-발, 바로 당신이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최초의 한글형 뇌졸중 캠페인 구호(catchphrase)를 만들었다. 사람이 거리나 공원 등에 쓰러져 있을 때 발견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이~하고 웃었을 때 얼굴마비 여부’, ‘두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팔 마비 여부’, 그리고 ‘칼칼라 등을 했을 때 발음이나 언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 가지 증상이라도 보일 경우 119를 이용하거나 발견자가 병원으로 신속히 수송하면 치료까지의 시간지체를 줄여 더 많은 뇌세포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Figure 1). 지금까지도 많은 환자들이 빠른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한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적지 않아 저자도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또 한 아주 대 병원에서는 원내에서 혈전용해치료시간을 줄이기 위해 버튼 하나로 활성화가 되어 급성 뇌졸중 상태를 파악하는 “FAST (Fast thrombolysis code of the Ajou ischemic Stroke Team)”라는 전산화된 원내 혈전용해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Figure 2).



(Figure 1. “뇌졸중에서의 이웃손발, 바로 당신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동영상 캡처)



(Figure 2. 병원 내 뇌졸중 혈전용해 팀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FAST 시스템)

둘째로, 뇌조직의 상태(tissue status of the brain, tissue time)이다. 사람에 따라 혹은 세포에 따라 같은 허혈성(조직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 자극을 받더라도 이미 뇌조직이 심하게

파괴되어 다시 혈액이 소통되었을 때 재관류 손상을 받기 쉬운 뇌조직도 있고 또 그 전부터 미세출혈이 이미 되어 있어 혈액이 다시 흐를 때 혈관이 터지기 쉬운 뇌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 이러한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환자들을 적절히 선별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려면 뇌조직(brain tissue)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영상도구가 필요하다. 본원에서 구축한 FAST 프로그램의 일부로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즉시 뇌졸중 MRI(확산강조영상, 관류영상, 경사예코영상, T2강조영상 등)를 촬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셋째로, 뇌조직으로 우회하여 들어가는 혈관의 측부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뇌세포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다(vessel time). 본원에서는 Spiral CT와 MRI를 이용하여 환자의 측부순환 정도를 빠르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측부순환 정도를 탐색하고 다양한 대뇌 측부순환 증강요법을 이용하여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뇌졸중 팀은 실제시간(real time), 조직 시간(tissue time), 혈관 시간(vessel time)이라는 세가지 시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 가장 진화된 방법으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빠르게 탐색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개개인에 맞는 급성기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개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과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저체온 치료’ 등의 다양한 신경 및 혈관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허혈성 뇌졸중은 심장질환과는 달리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와 같다. 그리고는 증상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Stroke: 타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만 대라고 하면 단연 ‘고혈압’ 조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혈압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혈압을 낮추기 위한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중증의 뇌졸중이라는 고약한 저승사자를 만약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스스로는 이 저승사자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뇌졸중 고위험군(부정맥, 심장병, 심부전, 고혈압 등을 동반하고 있는)에서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지들과 함께 뇌졸중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한번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야 한다. 급성기 뇌졸중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경우 중의 하나는 자고 일어나서 발생한 뇌졸중이다. 이를 가리켜 ‘기상 뇌졸중(wake-up strok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증상이 언제 발생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진료지침에 따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영상을 바탕으로 치료를 계획해 볼 수는 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있거나 친지가 있다면 아침마다 문안전화를 하는 것도 혹시 모를 환자를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부모님께 문안인사로 하루를 시작했던 우리 선조들의 예가 이러한 예기치 못할 저승사자에게서 우리를 지켜 줄 치료의 첫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편집위원회 : 이재호(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김상배, 노명우